

김 일 성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

전 세계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일 성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4년 10월 1일

존경하는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

존경하는 수리아의 손님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평양시의 각계층 인민들은 조선인민에 대한 뜨거운 우정을 안고 온 수리아인민의 친선의 사절들과 상봉하게 되는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이며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인 하페즈 알 아싸드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아랍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형제적수리아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인사를 전합니다.

조선과 수리아는 다같이 아세아대륙에 있으며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밑에서 압박받고 천대받던 지난날의 처지와 새 생활창조

를 위한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굳은 전 투적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당신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있으나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여 싸우는 전우로서 또한 형제로서 매우 가까이 잇닿아있다는것을 생동하게 느끼였습니다.

두 나라 인민들을 련결시키고있는 이 친선의 뉴대는 바로 반제반식민주의공동투쟁속에서 이루어진것입니다.

우리는 수리아인민이 새 사회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특히는 지난해 10월해방전쟁에서 수리아인민이 발휘한 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에 대하여 매우 감탄하고있습니다.

수리아인민이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하페즈 알 아사드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지난해 10월전쟁과 골란고지에서 계속된 치렬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한것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코대를 꺾어놓은것으로 되였으며 아랍땅을 영원히 강점하고 지배하려는 그들의

야심적인 침략계획에 파렬구를 뚫어놓은것으로 되었습니 다.

이것은 또한 아랍인민들에게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정의의 위업에 일떠서면 그 어떠한 원쑤도 타승할수 있다는 신심을 북돋아주었으며 중근동문제해결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 습니다.

우리는 수리아인민이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자 기의 승리와 같이 기뻐하며 그것을 열렬히 축하합 니다.

모든 사실은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 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령토완정을 위한 투쟁 에서 수리아인민은 비록 일시적난관을 겪고있지만 확고하게 승리하며 전진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 여주고있습니다.

지난해 10월전쟁시기에 아랍나라들은 군사적 으로 공동작전을 진행하고 경제적으로 제국주의자 들에 대한 석유수출을 금지하는 통일행동을 취함 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에게 일 찌기 없었던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아랍나라들

이 일치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능히 제국주의자들의
숨통을 틀어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유태복고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중근동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이
아무리 날뛰다 하더라도 그것은 멸망의 운명을 지
닌자들의 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중근동문제가 의연히 해결되지 못하고있
고 이 지역에서 전쟁이 여러차례 반복되고있는것
은 전적으로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
에 기인되고있습니다.

중근동문제가 옳게 해결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종식되고 이스라엘 침략자들이 강점한
모든 아랍땅에서 물러가야 하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빼앗긴 땅을
해방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있는 모든 수단을

다 리용할데 대한 확고부동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고있으며 중근동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수리아인민은 전쟁피해를 가시고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며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며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형제적수리아인민의 편에 든 든히 서있을것이며 그들의 정당한 립장을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또한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합법적권리회복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투쟁과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아랍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오늘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는 아랍인민들의 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속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 침략자들이 오만무례하게 허장성세하고있지만 그들은 죽어가는 제국주의세력에 자기 운명을 의탁하고있음으로 하여 반드시 패망할것입니다.

아랍인민들은 광활한 령토와 방대한 물질, 인적자원을 가지고있으며 신흥세력으로서 승승장구하는 제3세계에 속하고있음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랍인민들이 이룩하는 승리는 곧 우리 인민의 승리로 되며 우리 인민의 승리는 또한 아랍인민들의 승리로 됩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의 현 통치배들은 이른바 《이스라엘전법》을 도입하여 우리 공화국을 치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결탁하고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으나 그 《이스라엘전법》이라는것이 수리아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박산이 남으로써 남조선 당국자들의 타산도 깨여지고말았습니다.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의 투쟁은 서로 지지하

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이 관계는 날을 따라 더욱 공고발전되고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 과업은 분렬된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것입니다.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가지 과업을 중요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며, 셋째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며 다음전망계획년도의 웅대한 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에 총동원되고있으며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일대 혁

명적고조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전망은 휘황찬란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우리가 내세운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할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성파에 고무되어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운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것처럼 흑심한 파쇼폭압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요구하며 현 군사파쇼통치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을 포함한 각계층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이 새로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파쇼적폭압으로써도 인민들의 반항을 결코 꺾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을 반대하여 남조선인민들이 용감히 벌리고있는 투쟁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적인 투쟁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어느때나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며 그들과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일을 앞당겨나갈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완전히 철거시키는것입니다.

《유엔군》의 간판을 가지고있는 외국군대를 남조선에서 철거시켜야 한다는것은 오늘 막을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되고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는 수리아를 포함한 35개 유엔성원국들의 공동발기에 의하여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로 되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형세가 저들에게 불리하게 되자 요즘에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세계여론을 우롱하며 군대철거를 회피해보려고 책동하고있습

니다. 그들은 남조선에 있는 미군이 《유엔군》이 아니라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에 의하여 남조선에 머물러있는 군대라느니, 《유엔군》이 철거하면 전쟁이 다시 일어날 위험이 있다느니 하고 떠들고있습니다.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유엔의 이름을 리용하는것이 유리하다고 볼 때에는 《유엔군》이라고 떠들고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있는것이 불리하다고 볼 때에는 《유엔군》이 아니라고 하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언제나 쓰는 강도적론법 그대로입니다.

《한미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이 조작되기 전에 이미 미군이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기여들었다는것은 엄연한 력사적사실이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지워버릴수 없습니다.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유엔군》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합법화할수 없게 되었는데 하물며 미제와 남조선의 매국도당사이에 꾸며진 그 무슨 《조약》이란것을 가지고 합법화하려 한다는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정전협정의 리행과 관련한 그 어떤 담보 조건없이 《유엔군》이 남조선에서 나간다면 전쟁 위험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미제의 론조도 전혀 리치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조선에서의 정전의 유지는 미국군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평화 애호적인 노력에 의하여 담보되고있습니다.

《유엔군》의 간판밑에 조선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조선에서 상시적인 전쟁위험을 낳고있던 외국군대가 유엔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물러가게 된다면 그자체가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는것으로 되는것이며 여기에서 그 어떤 다른 담보문제란 제기될수도 없습니다.

외국군대가 철거한후에 그 어떤 문제가 제기 된다면 그것은 벌써 제3자가 개입할 문제인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자체의 내부문제로서 남북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해결할 성격의 문제입니다. 남북 공동성명은 이러한 협의의 확고한 기초로 됩니다.

만일 외국군대의 철거과정에 제기되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 문제와 관련한 직접

적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당국에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제기한것만큼 여기에서도 별로 문제될것은 없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당국자들이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거와 관련한 그 어떤 담보에 대하여서만 떠드는것은 어떻게 하나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지 않으려는것이며 조선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틀어쥐고있으려는것입니다.

사실상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머물러있다면 도리어 그것은 전쟁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조성하게 되며 일단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쉽게 전면전쟁으로 번지게 될것입니다.

미국이 조선과 아세아에서 더 큰 참패를 당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조선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야 하며 인민들의 세찬 반항과 불신을 받아 허우적거리고있는 남조선의 현 통치배들을 되살려보려

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과 같이 외세의존정책과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계속하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썸적탄압을 강화하면서 매국의 길, 민족반역의 길로 나가는 조건에서 현남조선당국자들 과만 협상을 하여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에 있는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대 민족회의를 열고 사상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민족적대단결의 정신에서 협상을 실현하여 조선에서 분렬과 대결을 해소하며 단결과 합작의 원칙에서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여야 합니다.

조선은 하나이며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므로 결코 둘로 갈라질수 없으며 또한 두개 나라로 영원히 분렬될수 없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고수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외국군대가 하루

빨리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외국군대가 물러가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넓은 길이 열릴것입니다.

오늘 전반적정세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날로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 더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련대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기회에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대통령각하와 수리아정부와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 나라들과 인민들이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제국주의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더

욱더 얻어맞고 쫓겨나고있으며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제3세계인민들이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습니다.

국제적력량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이제는 세계무대에서 발언권이 착취받고 압박받던 인민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아세아에는 혁명하는 나라, 싸우는 나라들이 많으며 조선으로부터 중국, 인도지나, 중근동에 이르는 아세아의 넓은 지역이 반제혁명투쟁의 무대로 되고있습니다.

캄보자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나라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용감히 싸우고있으며 남부웬남인민은 북부웬남인민과 함께 빠리협정의 엄격한 리행을 보장하고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으며 라오스인민은 통일되고 번영하는 새 라오스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

는 모든 아세아인민들의 투쟁을 저극 지지합니다.

아세아와 함께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지키며 자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쓸어버리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한 전체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의 지배와 통제를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과 자연부원,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제국주의가 망하고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승리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

지난해에 있는 제4차 빨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그후에 진행된 원료 및 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제6차 특별회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은 현 국제관계발전에 미치는 제3세계나라들의 커다란 영향력과 단결된 위

력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실은 제3세계인민들이 더욱 굳게 단결하여 일치한 보조로 싸운다면 제국주의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짓부시고 그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빨리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제3세계나라 인민들,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혁명적련대성과 친선의 뉴대로 련결된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은 한대륙인 아세아에서 함께 투쟁하며 함께 전진하고있습니다.

대통령각하를 비롯한 수리아 당 및 정부대표단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두 당, 두 국가, 두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힘있게 시위하고있

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며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앞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언제나 형제적수리아인민과 굳게 손잡고 싸워나갈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 친선단결 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 만세!

제국주의와 유대복고주의를 반대하며 령토완정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하페즈알 아싸드대통령각하와 수리아인민에게 위대한 승리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